

장흥군 다문화 가족지원 플랫폼 구축

가족센터 통합지원 전문기관 운영 상담·문화교육으로 조기정착 도움 성평등·가정폭력 예방 등에 집중

장흥군이 가족센터를 중심에 두고 지역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가족센터는 2009년 다문화가족을 지원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작해 2022년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장흥군가족센터로 통합했다. 이후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북한 이탈주민가족,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한 곳에서 통합지원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났다.

장흥군가족센터는 장흥군 총 인구 대비 약 2.7%를 차지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장흥군은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비롯해 ▲배우자 부부교육 ▲성평등교육 ▲인권감수성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기초 인권과 가족 내 역할 조율을 위한 교육사업을 집중 운영 중이다.

또 ▲자녀 성장지원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자녀 대상 프로그램도 다각도로 추진하며 다문화가족의 다음 세대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국어 상담원 배치 ▲통·번역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

업 지원 사업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과 같은 가정 밀착형 지원체계에는 보듬매니저를 직접 파견해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를 병행한다.

장흥군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위해 ▲다함께 프로그램 ▲교류소통공간 조성 ▲출산기념일 지원 사업 ▲민주시민 선거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해, 보다 건강한 가정·행복한 사회를 형성하는 일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제53회 어버이날」 축하기념 영양만점 건강계란 기부행

○ 기부단체 : (사)대한산란계협회 함평군지부 ○ 일자 : 2025. 4. 28.(월)

대한산란계협회 함평군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달걀 기탁식에 참여한 뒤 이상익(가운데) 함평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영양만점 달걀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함평산란계협회 2000판 기부

대한산란계협회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달걀을 기부했다.

함평군은 지난 28일 대한산란계협회 함평군지부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달걀 2000판(6만개)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달걀 기부를 위해 군청사를 찾은 김인원 대한산란계협회 함평군지부장은 "약소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산란

계협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기부받은 달걀을 지역 경로당 377개소에 골고루 배부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 주신 산란계협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이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9개 산란계 농가로 구성된 (사)대한산란계협회 함평군지부는 매년 인제양성기금과 불우 이웃돕기성금 등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수생태계 환경 개선...물고기 20만 마리 방사

환경단체·시민 등 환경정화 활동도

나주시가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물고기 방사 행사를 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수중 생태계 개선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물고기 방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호수공원 준설공사로 인하여 부족한 수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정년단체와 환경단체, 시민이 함께 청정 생태 환경을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빛가람청년네트워크, ESG환경 실천지킴이 등 지역 사회단체와 협력해 추진했고 공원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하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의 의미를 더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한 시민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선제적 친환경 방역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다.

이번에 방사한 미꾸라지와 비단 잉어, 치어 등 약 20만 마리는 수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모기 유충의 천적 어종으로 장구벌레, 갈따구 등의 번식을 막아 도심 내 감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법'의 대표 사례로 각광받고 있다.



윤병태(가운데) 나주시장이 지난 27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물고기를 방사하고 있다.

행사가 열린 빛가람호수공원은 세계질뚫동산 조성, 호수준설공사, 음약분수 개선, 빛가람교 교량하부 경관개선 등을 통해 일상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최고인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아이들과 함께 방류에 참여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느꼈다"라며 "약팜 없이도 모기를 줄이고 물을 깨끗하게 한

다는 점에서 더 의미있게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과 사회단체가 협력해 도시 생태계를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공동체 방역의 모범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나주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방역 방식을 확대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성군, 상무평화공원에 놀이·휴식 공간 조성

18억원 들여 내년 8월 준공

장성군이 삼계면 상무 평화공원에 물놀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복합 놀이시설을 조성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테마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18억원을 들여 '육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담은 놀이공간을 만든다. 등대 모양의 물놀이대와 네트 놀이터, 어린이 마운딩 놀이터 등을 조성해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낭만방이 가능한 가족 휴게시설(티하우스)과 그늘막 등도 함께 마련된다.

군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6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무평화공원 복합놀이시설 조감도.

장성군 관계자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장성을 찾는 방문객 증가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민의 날 군민화합 한마당 내일 개최

체육경기·노래자랑·경품추첨

'제53회 강진군민의 날 및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다음 달 1일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강진군민의 날'은 1973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 여건과 군민 의견을 반영해 날짜를 조정했으며, 2001년부터 '강진'이라는 지명의 역사성을 담아 5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풍물패 길놀이로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어르신 댄스공연, 사물놀이, 태권무도 퍼포먼스를 통해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어 읍·면 선수단과 군민 대표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된다.

기념식 이후 진행되는 읍·면대항 체육행사에서는 윷놀이, 에어봉 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씨름, 게이트볼, 축구, 배구 등 총 8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축구와 배구는 영랑·청자·다산·하멜 등 4개 권역 대항전으로 운영돼 군민들이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1실내체육관에서는 읍·면 대항 노래경연이 열리며, 초대가수 진이랑 등이 출연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지만, 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역할을 하나로 모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화순봄꽃축제 꽃강길 전시 2주간 연장 운영

봄꽃 조형물·토피어리·초화류 등

화순군은 '2025 화순봄꽃축제'에 대한 탐방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꽃강길 일원 주요 전시를 오는 5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순군은 꽃강길 상상정원과 음약분수 주변의 봄꽃 조형물, 토피어리, 초화류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봄의 정취를 더 오래 느낄 수 있도록 연장 전

시를 결정했다.

연장 기간에는 전시장 내 초화류와 시설물 유지 관리도 병행한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류정수 소장은 "이번 전시 연장은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의 정취를 조금 더 선사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시 종료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